

16) Arthroscopic replacement or reconstruction of anterior cruciate ligament
 14) 들이며 13,14,17,25 그 순서대로 그 난이도가 증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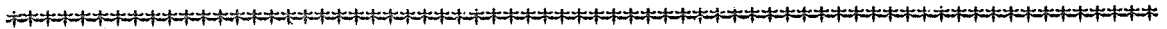
6. 합병증

- 1) Damage to intraarticular structures
- 2) Damage to meniscus
- 3) Damage to fat pad
- 4) Damage to cruciate ligaments
- 5) Damage to extraarticular structures
 - (1) Blood vessels
 - (2) Nerves

- (3) Ligaments and tendons
- 6) Hemarthrosis
- 7) Thrombophlebitis
- 8) Infection
- 9) Tourniquet paresthesia
- 10) Synovial herniation and fetals
- 11) Instrument breakage

Sherman 등은 8.2%의 높은 합병증의 발생빈도를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관절경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시 혈관절증 및 기구 파손의 빈도가 제일 높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술자의 능력이며 정교한 수술기를 시행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 : 추계 학술대회에서 특강으로 발표된 내용임.



인제대부속 서울 백병원

서울시 중구 저동에 자리하고 있는 인제대부속 서울 백병원으로 병원탐방을 나섰다. 대충 연혁을 보면 백병원은 1932년 백인제 박사께서 우에무라 외과병원을 인수, 의탁 경영을 시작으로 1946년 12월 최초의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백병원을 설립하였다 한다.

지금은 백낙환 의료원장(현 병원협회장)과 백낙조 이사장이 학교법인 인제학원(서울 백병원, 부산 백병원, 부산 인제대학)을 선친의 인술제세(仁術濟世)의 이념으로 교육과 연구, 진료로 헌신을 다하시고 최근 상계동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에 대학 부속병원을 1989년 3월 개원 예정으로 무척 활성화되는 병원이라 본 기자는 부러움이 앞섰다.

우리나라 제일 중앙인 서울 명동 한복판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명동 성모병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여의도로 떠나서 명실공히 중심을 지키고 있으며 지하 2층과 지상 13층 그리고 별관건물로 구성되어 앞으로는 남산을 마주하며 뒤로는 빌딩

을 내려다 보니 좌청룡 우백호의 웅지를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시내 한복판이라 지하철과 버스 노선이 잘 연계되어 있어서 무척 교통의 편리함을 느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들어서니 병원건물 위쪽에 “88서울 올림픽 선수촌 전담 병원”이라고 현수막으로 내려져 있었다. 알고보니 86아시안 게임 때도 선수촌 전담병원을 운영하여 잠실벌에서 선수들 치료에 무척 애를 썼다고들 한다.

물리치료실은 지하 1층에 자리하고 있었고, 수치료실, 전기치료실, 운동치료실로 좁다는 느낌은 있지만 짜임새 있게 잘 구분되어 있었다. 물리치료실 업무방침과 시설장비, 가족에 대해 이정근 실장님께 물어 보았다.

“병원 업무방침이 인술제세(仁術濟世)인 만큼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최선을 다해 베푸는 것이지요. 그리고 직원들의 인화단결과 환자에게 친절하고 항상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 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요. Hot pack 타올은 매일 세탁과 모든 외래환자에게 세탁된 환의 제공으로 항상 청결한 느낌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환자의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치료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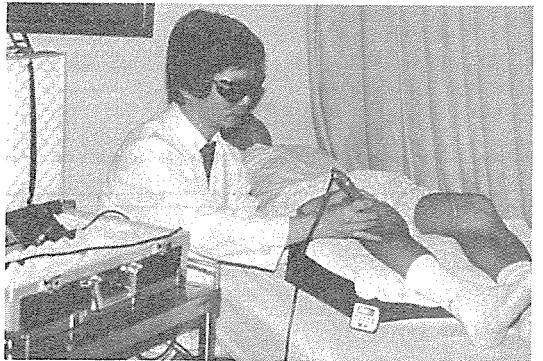
직원을 위한 치료실보다 환자를 위한 치료실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병원에서 제일 아늑하고 친절할 곳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는 제가 국립의료원 4년 근무 후 하나 둘씩 최신장비로 바꿔 놓아서 지금은 타병원에 보유하고 있지 않는 space laser therapy (적외선 레이저 치료기)까지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직원은 김승규 선생, 이은경 선생, 엄윤오 선생 4명이고 유급 트레이너를 2명씩 교육을 시켜 모두 6명의 치료사가 항상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만만 하시고 특히 기능회복을 위해 운동치료를 제일 중점으로 두시고, 치료사당 환자 15명 이하를 끝까지 주장하시는 이 실장님의 변함없는 태도에 본 기자는 격려와 박수를 아끼고 싶지 않았다. 부인까지 5년 후배인 학사 PT 커플로서 1 남을 두고 계신다 한다.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을 도맡아 치료해주신다는 다재다능한 김승규 선생님, 항상 친절과 웃음으로 대답하는 이은경 선생님, 성실히 일에만

전념하는 엄윤오 선생님, 모두들 백병원을 빛낼 주역들이라고 느꼈다.

인술로써 세상을 구한다는 백병원 식구들, 더욱더 활성화 되고 발전되길 바라며 본 기자는 가을의 결실을 거두는 풍요로운 마음으로 병원문을 나섰다.



社 告

※ 회원증서 발급

협회에서는 87년도 신입회원부터 회원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바 기존 회원께서도 회원증서를 원하시는 분은 지부를 통해 중앙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 1,000 원]

87년 11월

회장 김 용 천

신간

**허리가 아프시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Renecailliet, MD 지음
정진우 옮김

값 3,500 원

도서출판 대학서림 745-1220
763-1220